

文 “박찬 감동에 잠 못이뤄… 남북미 새 시대 간절히 염원”

국무회의 앞서 북미회담 TV시청 “지방선거 공정성 문제 없도록 끝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흐뭇한 표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TV로 북미정상회담을 시청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선 눈을 떼지 못하고 열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께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진행하던 차담도 이날은 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TV로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국무회의전 북미정상회담 시청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차담을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 시청합시다”라며 국무위원들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의장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빔 프로젝터로 생중계 화면을 송출했다. 이와 별도로 회의실 테이블에도 6대

의 TV를 설치했고, 문 대통령 자리에는 별도의 모니터를 배치했다.

TV 시청에 열중하던 문 대통령은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국무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자 오른손으로 ‘잠깐만’이란 사인을 보내며 조금 더 시청하자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박찬 감동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 역시 이번 회담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담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 아이 태어난 날,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던 심정”이라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 건강하게 큰 소리로 울며 세상에 나와다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실장은 국무회의 전 ‘어제 한미정상이 통화했는데 오늘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망이

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치러지는 만큼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요 참모진들과 사전투표를 하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면서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朴 남북 협력 실천 野 북미회담 평가 절하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날

박원순 “빠른시간내 평양 방문·협약”
김문수 “朴, 시민단체의 허수아비”
안철수 “박원순의 7년 실정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문재인정부의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적임자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선 이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정부의 협력을 얻어 가장 빠른 시간에 평양을 방문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인 자신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한반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연합뉴스

그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재산세 허위사실로 고발한 데 대해 “제가 은근한 재산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색을 내세우지 않고 당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막판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야권에서는 같은 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박 후보 깎아내리기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담판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 과거가

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핵심은 핵”이라며 “지족은 가졌고 우리는 없어서 미국과 김정은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시민단체의 허수아비이자 빔덩이로 비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같은날 오전 노원구 유세에서 “박원순의 7년 실정 끝내고 3선을 막으려면 3번 안철수를 찍어달라”며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되고, 김문수를 찍으면 반대로 박원순이 된다. 사표를 만들지 말아달라”며 야권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병준 기자 joker@

지역일꾼 4016명 선출… 밤 10시30분께 당선자 윤곽

제7회 지방·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부동층 40%의 투표, 결과 좌우
전체투표율 60% 넘을지도 관심
개표소 254곳 결과 실시간 공개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고, 1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날이 밝았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각당과 후보들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에 가서야 당선자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20.14%를 기록해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잠깐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교육 소통령, 진보 후보가 ‘절대강세’

교육감 선거 D-day

文 정부 1년 교육정책 평가 선거
현직 후보 12명중 11명 진보성향
여론조사 결과 현직 후보 모두 1위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또 현직 교육감 출신 후보 12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가 정당 공천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속에 치뤄지면서 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직 교육감 12명 중 11명이 진보 성향 후보인 만큼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던 2014년 선거 결과가 재연될지도 관심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인 탓에 인지도에서 우위에 있는 현직 교육감들의 재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현직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 현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이해당사자들 위주로 진보·보수 프레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송 3사가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명의 현직 교육감들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조희연, 37.7%)과 경기(이재정, 35.6%)에서 현직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직이 없는 인천에서는 도성훈(15.9%) 후보가 앞선 가운데, 고승의(10%), 최순자(9.5%)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설동호, 27%), 충북(김병우, 31.2%), 세종(최교진, 30.2%), 충남(김지철, 20.8%)에서 현직이 앞서고 있다. 다만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지지후보 없음·모름)’이 50~62%로 많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역시 부동층(52.1%)이 과반수를 넘는 가운데 현직 민병희(31.2%) 후보가 앞서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현직이 없는 전남을 제외한 전북(김승환 29.9%), 광주(장휘국, 28.5%) 현직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석규(24.1%), 장석용(15.9%), 오인성(11.1%)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경상권의 경우는 부산(김석준, 37.7%)과 경남(박종훈, 35.9%)에서 현직이 크게 앞서고 있다. 반면, 현직이 없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는 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텃밭에서 첫 진보 성향 후보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용수 기자 hys@



“6·13 지방선거 꼭 참여하세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에서 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등이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